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 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신교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총신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금주, 금요일 저녁 7시

17일

제1차 청지기 훈련

바로 나를 위한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

(갈 2:20)

우리는 바울처럼 하늘의 이상(Heavenly Vision)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지기 훈련 시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차 청지기 훈련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향한 은총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위임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청지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청지기 훈련 당일(17일)에 가족 및 구역 식구들과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훈련 직책배치도는 본지 7면을 참조하세요.)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손님과 주인 (엡 3:16, 17)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편히 자리를 잡고 사시도록 하라고 외치고 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한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 신자의 마음을 예수님의 집으로 만드신다(요 14:23).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처를 만드실 수 있단 말인가(요 14:23)?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고 계신다. 자들이 지금 마음속에 주님이 거실 곳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그 집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처를 만들길 원하신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해돋이만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았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그의 거처를 정하신다. 믿는 자들의 몸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믿는 자들의 마음이 예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고전 6:19, 20).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그리스도를 항상 반갑게 모시는 집이 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의 집이었다. 주님은 그 집에 늘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죽어있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논으로 보았다(요 11:40). 바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의 마음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처소가 될 수 있다. 그분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처소로 삼으실 것이(대제 3:20).

손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우리 안에 모셔 들었다. 반이었던 그 사람 중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주여!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것이다.

도사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의 방이다. 주님은 책과 그림들이 있는 곳을 보여져 보신다. 그리스도인이란 쓰레기기에 버려져 한 잡지들이 테이블에 있다. 주님은 책상에 성경을 놓으시며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마음 중심에 놓으라고 하신다(사 1:3). 우리의 관성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 그분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과 거지 없는 것은 떠난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도와 주신다.

식당 주님은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인가 물으셨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렸다. 주님은 음식이 준비되었을 때 드시지 않고 말씀하셨다. "너를 만족시킬 음식을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하라. 그것이 진정 너를 만족하게 하는 양식이다."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로 믿는 기쁨을 주셨다. 내 세상 천지에 이보다 귀한 영혼을 만족케 하는 양식은 없다(요 4:32).

거실 주님은 이곳에서 매일 아침 대화를 나누자고 하신다. 이곳에서 성경의 진리와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다. 또한 내 인생을 향한 그의 목적과 확신도 친히 공급해 주셨다. 그러나 나의 다른 많은 일들로 인해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갔다. 어느 날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신실하지 않은 그때에도 그곳에 계셨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또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나를 구속한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 시간을 지킬 수 없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이 시간을 꼭 지키라고 부탁하셨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기다리신다(마 18:20).

일하는 방(작업실) 주님은 천국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라고 하신다. 또한 나는 할 수 없으며 내 손을 주님께만 맡기라고 하신다. 그럴 때에 주님의 영으로 나는 통하여 일할 것이라고 하신다. 성경에서 일하시도록 그를 믿고 의지할 때에 나를 통하여 계속하여 일하심을 누리게 될 수 있다(요 15:5).

누는 방(욕실) 나만이 즐기는 방이다. 주님은 함께하길 원하셨지만 난 거절했다. 마음이 아팠다.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장소를 가서 즐기는 나의 모습, 나는 과연 예수님께 어떤 친구인가? 나는 그 날 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즐겨 가시는 곳에 함께 갈 것을 깨달았다. 그 후에 주께서는 이 방을 바꾸어 주셨다. 주님은 다른 친구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옛 친구들에게도 다른 보상을 해 주셨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쁨의 음악이 나의 집에서 흘러나왔다.

옷장 내 마음속의 버릴 수 없는 썩은 것들이 있는 곳이다. 주님은 이곳 또한 내어 주길 원하셨지만 나는 화가 났고 내어 드리기 싫었다. 주님은 고��스러워하셨다. 예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게 된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곧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끊어져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옷장의 열쇠를 내어드렸다. 순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를 끊임없이 주장하던 이 썩은 것들로부터의 해방, 곧 자유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인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님을 위한다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 하나를 청소하려면, 둘째 방 청소가 끝나기도 전에 첫째 방이 어질러짐을 발견한다. 바로 그때 나는 주님이 여전히 나의 집에서 손님으로만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소유물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나뭇잎이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다. "주여!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의 마음을 그의 처소로 삼으신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후 5:17).

DILEMMA & DELIVERANCE

*⁽¹⁾Bless the LORD, O my soul! O LORD my God, Thou art very great; Thou art clothed with splendor and majesty
⁽²⁾Covering Thyself with light as with a cloak, Stretching out heaven like a [tent] curtain. ⁽³⁾He lays the beams of
 His upper chambers in the waters; He makes the clouds His chariot; He walks upon the wings of the wind ⁽⁴⁾He
 makes the winds His messengers, Flaming fire His ministers. (Psalm 103:1~4)*

Many of today's Christian believers do not know the terrible dilemma they are in, and therefore fail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God's wonderful deliverance. I see so many people striving for success, perceiving any obstacles as their dilemma and praying for deliverance from them. They do not want to miss Joseph's blessing of fame, power, and material wealth that many of today's churches like to preach about. The Bible teaches us about the dilemma of sin, which many churches do not like to discuss. The consequences are that believers pray about whatever their minds desire or think. They focus only on their hardships, not their sin, and therefore miss the whole point of why God sent His Son to this earth. Jesus came to deliver people from sin, not adversity, but people continue to think about how they can have success in their business, family, friend, and church relationships. They do not seek deliverance from sin, but rather deliverance from the things that interfere with their success.

Today's Bible passage begins,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v. 1). David is not talking about his own fame and success. He says,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ne of His benefits; who pardon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vv. 2&3). This man is really thinking about his dilemma. It is in his mind. He continu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v. 4). When David sinned, he prayed, "O Lord, be gracious to me; heal my soul, for I have sinned against You"(Ps. 41:4). He did not ask for success, but for God to heal his soul. He understood his real dilemma, even though he was king and had everything. As such, he sought God for real deliverance.

Sin is a curse against God. It is an insult to God. Many people think their sin does not affect God. When David killed Uriah, Bathsheba's husband, his sin was only against God. People do not like to think about this important fact. They tend to think their sins only hurt the people they sin against. They forget about God. At first, David tried to hide his sin, but eventually he prayed, "Against You, You only, I have sinned and done what is evil in Your sight, so that You are justified when You speak and blameless when You judge"(Ps. 51:4). Adam and Eve only ate one little piece of forbidden fruit, but all their descendants were cursed. They did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ir sin against God. 1 John 3:4 says, "Everyone who practices sin also practices lawlessness; and sin is lawlessness." God gave us His Law, but sin breaks it. When believers commit sin, they try and hide it, make excuses, and even blame others, but you cannot hide from God. God calls,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will be like wool"(Isa. 1:18). God wants to forgive you. When John the Baptist began to preach, the first thing he talked about was repentance(Mt. 3:2), and when Jesus came to this earth, his first sermon was about repentance (Mt. 4:17). Jesus clearly said,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Lk. 13:3). Paul proclaimed to the men in Athens, "Therefore having overlooked the times of ignorance, God is now declaring to men that all people everywhere should repent"(Ac. 17:30). Today, repentance removes the curse against God, but soon this open door to salvation will close.

Sin damages the human soul, bringing sickness and diseases of all kinds. It requires serious treatment. Just as you go to the doctor to cure certain ailments, so believers must go to God to heal their soul. Unfortunately, most believers do not pray for their soul because they are always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block their success. Isaiah 55:2-3 says, "Why do you spend money for what is not bread, and your wages for what does not satisfy? Listen carefully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delight yourself in abundance. 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Listen, that you may live;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according to the faithful mercies shown to David." Your soul shall live if you come and listen to God. Psalm 33:18-19 also says, "Behold, the eyes of the Lord is on those who fear Him, on those who hope for His lovingkindness, to deliver their soul from death and to keep them alive in famine." If you listen to God, your mind will have peace and happiness, and your soul will be restored,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Ps. 23:3). Believers need deliverance from sin.

Sin imprisons people. Unrepentant sin places them under God's judgment,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judged; he who does not believe has been judg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Jn. 3:18). If you sin and do not repent, you become a prisoner of hell. Sodom and Gomorrah were destroyed because of sin. Sin is a really serious problem. James 2:10 says, "For whoever keeps the whole law and yet stumbles in one point, he has become guilty of all." One sin, small or great, makes a man a sinner and brings him under condemnation. No one can keep the whole law. This truth is not only evidenced by your conscience, but also by the talk of your neighbors, friends, family, and even the devil. Sin ties you down to death.

No one but Jesus can solve your sin problem. If you do not come to Him, you are doomed. The devil constantly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1 Pet. 5:8). If you confess and repent of your sin to Jesus, he will forgive you by washing it away and healing your soul. If you truly believe in Him for salvation, He will deliver you from the devil, so that you may live in peace and have eternal life. Jesus says,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dine with him, and he with Me"(Rev. 3:20). He cries out,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Jn. 7:37). In Revelation 22:17 Jesus extends His last invitation for salvation before His second coming,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This amazing and wonderful invitation is for your soul. Believers whose dilemmas are in earthly things will experience great disappointment. Those who do not think about or appreciate God's greatest blessing will not walk through heaven's gates. Is the view of your dilemma the same as God's? God wants to deal with your sin, but you have to bring it to him. Stop wasting time with your selfish and prideful problems, and start spending time in prayer making things right between you and God. 

다음 주일 설교

진정한 문제와 참 해결

- 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②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③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④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시편 103:1~4)



김석관 목사

진정한 문제의 실체는 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자신의 문제거리로 생각하며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축복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설교하기 좋아하는 것으로 명예, 권세, 물질적인 부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죄'라는 문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 가정, 친구, 교회에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문제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1절). 다윗은 자신의 명성이나 성공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2,3절). 시편 저자는 정말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4절).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시 41:4). 그는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양이었고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주인 죄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잊고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로하시라 하고 판단하실 때에 온전하시라 하리이다'(시 51:4). 야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단지 한 입 베어 먹었을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자손이 저주를 받았습니. 그들은 하나님께 범한 그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4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것을 파괴합니다. 신자들조차도 죄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려고 애씁니다. 변명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 서로 문명화하십시다. 죄가 주께 갈음할 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 줄이라도 앎을 같이 되리라'(사 1:18).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첫질교는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사 3:2).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첫질교 역시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마 4:17).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할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멸하시라 회개하라 하였으

니'(행 17:30).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를 도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은 머지않아 닫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 상처를 주는 죄

죄는 인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온갖 질병을 가져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신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55:2,3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쁠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며 내회하며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하나님께 나아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3:18,19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니이다.' 하나님을 청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이다'(시 23:3). 진정으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가두어버리는 죄

죄는 사람들을 가둡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갇힌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죄는 진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10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역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의 죄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저주 아래 놓아줍니다. 그 죄가 그 죄로 그 사람의 생애를 없애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 가족 심지어 마귀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탄에게 사방에 이르게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꿀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 5:8).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제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재물을 앞두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17을 통해 구원을 향한 마지막 초대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령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이 놀라운 경이로운 초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고민하는 신자들은 곧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앞에 여러분의 죄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하는데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롬 4:1-5)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 이를 위해서 은총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인간들끼리 맺은 관계는 아무리 좋아보일지라도 결국은 절망만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인생에게 살 길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창 12장).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믿겠는가? 아브라함은 믿었다(창 14:17).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진실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이다(사 48:13). 관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대담함을 허락하신다. "은총이다. 우리의 수고, 노력이 없어도 모든 것은 가능하다. 단지 하나님의 관능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면 된다(롬 4:5).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르게 살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은총은 사라지고 고만이 남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살 길을 열어 주실 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패하여 하신나니"(고전 1:28). 외적으로 가득한 가르침들을 멀리 하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믿음으로 절대 순종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만들어져야 한다. 깨끗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롬 3:23).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의 길을 열어 주셨다(롬 3:24).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시 32:12).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롬 3:28).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졌다(창 15:6). "살 길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세상의 물질, 명예에

아닌 의로움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다(약 2:23).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찬 449장).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창 3:5,6). 종의 땅에서 자유롭게 된다(창 5:1).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이다(갈 2:16). 이전에 어떤 큰 죄를 범했는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용서하여 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 의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례, 무할례에 참여할 수 있다(롬 4:9-12).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창 18:8; 창 22:17,18). 우리가 정사를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위한 비결은 오직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 거듭난 신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관능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 놓고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은총의 자녀이며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롬 4:16).

복음을 흐리지 말라. 베드로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을 때 그는 곧바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을 때도 그들은 도망하지 않고 갇수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옥문이 열렸다"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경험과 성경 지식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만 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의 정황들을 합리적으로 모면하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심판에 나쁘게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아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눅 11:32). 주님은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며 동시에 은총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보다는 이 세상의 축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보혜사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믿음의 군병들이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시라"(찬 388장).

복음을 위한
행정위원회

김 훈
(장로, 행정위원장)

"내가 범죄하였사오니"(창 15:6)의 신년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 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성도들의 모습은 오직 믿음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으로 회교를 섬기는 저희들도 더욱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 성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현재 시무 중인 교역자들은 부목사 34명, 여전도사 23명, 신교사 1명, 찬양위원회의 전임자 5명, 교역자 보조 6명, 외신부 보조 9명이 있으며,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은 총 6명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섬기는 직원들은 총 6명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을 전하는 선봉에서 있음을 알고 이런 이름 출전하여 교역자들을 포함한 전 회교인 한께 드리는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제반 사역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방앗없이 뛰고 있으며 신령한 예배와 천국언급 양성, 신교와 전도, 이웃 사랑의 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경조사에 관한 일도 말씀에 기초한 모든 예식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시설

충현교회는 본당뿐만 아니라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교회 본당 외벽 보수 위한 설치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외벽에 대한 정밀 검사를 마친 뒤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역자 사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공사를 마친 복합관은 입주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위한 충현어린이집은 강구구 내에서 수차례 우수 시설로 인정을 받을 만큼 시설면이나 내용면에서 충실하게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충현기도원은 본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충현동산, 충현교회 유적재단, 사회복합법인 충현복

지재단 등 3개의 법인이 교회와 모든 일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두세고 있습니다.

10% 절약을 통한 110% 복음 전도

현재 교회가 일년 운영비로 2억 2천만 원, 복사유지비로 2천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만 절약하면 많은 물질을 절약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10%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모임이 끝난 뒤에 반드시 소동후기 주시고, 냉난방을 위해서 출입문을 닫아 주시고, 작게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나 화장지, 수돗물도 아껴 써 주시고, 이번지 사용과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10%만 절약을 해도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한 몸

교회의 행정은 단순히 행정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제가 교회이기에 모두가 함께 움직여 모든 회교를 섬겨야 합니다. 현재 회교는 각종 후회시설을 보수 및 교재하고 있으며 특별히 전신과 영상 시설 보완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역동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사설 현대 자원봉사가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 있는 소수의 봉사자들이 아닌 전 성도가 자원봉사에 동참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더욱 많은 달란트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특히 주전직서를 잘 지켜 주시므로, 주주간에 점사님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고, 예배전 후로 차량이 복잡할 때는 서로 양보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회관이나 건물 부근 주차는 반드시 전면 주차를 하시고, 복로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기어 중립과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십시오. 특히 교통요역에도 주차장이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골 2:5). 작은 일이라 큰 일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올수록 변화되는 주님의 은총은 교회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망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바뀐 나

내가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 간증문을 쓴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선교지 공항에서 그곳만의 더운 공기를 처음 맡아본 것이 잊그레 같은데 말이다. 첫날 힘든 비행을 하는 동안에 나는 정말 선교를 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에도 마음이 답답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가는 차에서 우리 팀원들은 다 같이 찬송을 불렀다. 정말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힘차게 찬양하였다.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완전 무장한 군사를 같았다. 그래서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지고 있던 부담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전도를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반겨 주었고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서 있어서 고단해진 발을 위해 앉으라고 권하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 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긴 전도지를 읽으라고 해도, 아무 거리낌없이 우리의 말대로 따라주곤 했다. 오직 감사뿐이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선교를 하다 보니 예전에 뒤에서 불끄러미 쳐다보는 내가 아니고 어느새 그들 앞에 나가 담대히 전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바뀐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

김현식(중등3부 1팀)

은혜의 비결은 겸손!

두 번째 가는 선교였기 때문에 긴장이 약간 덜 하였습니다. 한편으론 '지난 번과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첫날 사역은 심수투성이었습니다. 지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우쭐해져서 저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복음을 들은 현지 사람이 복음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의 사역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전도하는 우리를 따라하며 복음을 영접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역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한 저의 모습이 항상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소희(고등부 5팀)

자기 부인을 하면서!

▶ 처음 간 선교지에서 기도가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해서 가고 싶습니다. (임병준)

▶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소라)

▶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지현)

▶ 자기 부인을 하면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선교였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더 자기 부인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주재운)

▶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찬영)

▶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고,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서 십자가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홍덕웅)

▶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깨닫게 된 선교였습니다. 예비애 놓으신 영혼은 선교 팀원들이 지나쳐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박상대 장로, 담장)

▶ 주님이 예비애 놓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역시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형민 교사, 총무)

(중등3부 5팀)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6일(월) ~ 2월 15일(수)	대학부	이용수
2월 6일(월) ~ 2월 16일(목)	대학부	이신동
2월 7일(화) ~ 2월 15일(수)	대학부	이근호
2월 7일(화) ~ 2월 15일(수)	대학부	윤석민
2월 7일(화) ~ 2월 16일(목)	대학부	유상태
2월 7일(화) ~ 2월 16일(목)	대학부	박홍규
2월 8일(수) ~ 2월 16일(목)	벨열오케스트라	강임규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박옥현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오순도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권명욱
2월 10일(금) ~ 2월 17일(금)	대학부	임창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강철형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신상수
2월 1일(수) ~ 2월 9일(목)	대학부	이양호

아이들과 말씀과 사랑을 나누며

‘이 작은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유년부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이 아이들에게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해야 할지, 혹시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아이들과 잘 맞지 않아서 대충 놀다가 보내게 되면 어찌나... 모든 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년을 참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은 유치부에서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는 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정답을 맞추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대답에 맞장구를 쳐주면 신이 나서 다른 아이들도 정신없이 답을 냅니다.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도 성실하게 잘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며 험든 내색을 하지만 같이 입을 맞추며 외기 시작하면 서로 더 잘, 더 많이 외려고 “저요-저요-” 손들어 시켜달라고 조르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며 순수하고 단순한 가운데 믿음을 키워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단순한 믿음에 저 또한 도전받아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보게 되고, 말씀도 열심히 외우게 됩니다. 더 열심히 보살피고 주고,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과 아이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죄인인 나를 사용하셔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소망을 주셔서 용기를 내어 올 한 해도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길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이들과 말씀과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갈등을 느끼거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백경희(교사, 유년부)

십자가를 지는 한해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거든”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될 것이고, 또 남편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속에 ‘바알’을 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오해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참 제자의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길이라해도 예수님이 묵묵히 가신 길을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이제 걷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험악하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일지언정 주님과 함께라면 즐겁게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묵묵히 따르고 싶습니다(마 16:27). “주님, 이 한 해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연숙(집사, 14교구)



2006년 전반기 장학생 명단

전액 장학생(1명)

4기(02): 기윤영

대학원생(26명)

강미경	강영기	강진우	계서연	김경성	김광미	김누리
김현보	나기태	문성욱	박경배	박애선	박연미	양현구
윤석원	이나흠	이병진	이유미	이진아	전보은	정명근
정혜리	조인선	주바도브	최윤경	한정우		

대학생(123명)

강민희	강재구	강한나	강호성	곽현우	구은과	권덕용
김동식	김명희	김선아	김정은	김성훈	김소연	김아름
김연희	김예진	김요한	김용원	김유영	김윤경	김종배
김재현	김정용	김지호	김찬미	김충현	김현우	김현진
김홍미	나지희	노지은	다누리	동유창	문은희	박건진
박경은	박경훈	박미연	박병진	박보람	박상준	박예정
박정용	박지영	박효선	배찬희	백민지	백지연	백지연
손석호	손향아	송은혜	신성철	심재원	안윤정	염혜실
오한양	오태식	유미나	윤영현	윤용성	윤지현	윤지희
윤하원	이누리	이단비	이대오	이민형	이보람	이상용
이상희	이성구	이성현	이승미	이송이	이슬기	이우주
이은주	이은혜	이재욱	이주영	이주희	이지연	이지윤
이태현	이한봄	이한호	이혜원	이호준	장성재	장태은

전진영	전혜영	전혜정	정다희	정성미	정준성	정지혜
정진성	정혜진	조상미	조한규	조현국	지은미	지은진
천진경	최웅	최진정	최안나	최예슬	최유리	최지현
한동원	한대범	현슬기	형윤옥	홍경화	홍정은	황세연
황인호	황정현	황지현	황지훈			

고등학생(63명)

강진	강부희	강성천	강경원	강다영	강대혁	강도홍
김민수	김민주	김성진	김성해	김예스터	김유림	김윤영
김재훈	김주원	김준환	김지선	김지수	김지윤	김지현
김지혜	남미지	문상호	박다솜	박정혁	박준	박진수
백민아	변재승	변태연	송성배	송태환	양재도	양준섭
엄예은	예지희	오다현	유가원	유재우	이나현	이다영
이동욱	이성진	이영철	이은혜	이주원	이지혜	이초환
임진아	장윤호	전숙현	정영욱	정예하	정찬영	진세영
최민영	최진영	최한림	표세현	한사라	한이락	황제민

이상 213명

충현장학생 선발자 명성문련 실시(대학원생·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2006년 2월 17일(금) 청지기 훈련 후 장소: 베다니홀

· 제1차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

바뀌어진 삶이 되기를!

지난 청지기 훈련은 저 자신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 변화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나를 향한 남편의 비난도 비난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찬양! 저는 곧바로 찬양대 양성부를 거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받았고 감사와 은혜를 알면서도 한편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단은 저를 시험하였고,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사단은 저에게 늘 속삭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어린 아이가 셋이나 있잖아. 그리고 셋째는 몸도 약하고 자주 아프잖아. 집도 멀고 너의 몸도 늘 힘들어 하잖아. 다음번에 하고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말씀을 더욱 부어잡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이 새롭고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청지기 훈련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완전히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이 말씀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사단의 꾀임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해정(집사, 9교구)

부어 주실 은혜

2005년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난 후, 내 육체의 욕심과 이익,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식과 외식적이었던 내 모습이, 철저히 낫아지시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할 때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며 적당히 복종하고 적당히 순종하는 죄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나의 원대로 마음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라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뜻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 나의 죄악들을 만지작댔다. 또한 말씀 가운데 온 가족을 잃고 내가 살던 집이 불에 타고, 갑작스런 질병으로 목숨까지 위협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음성 가운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과 이 죄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함으로써 나를 영적인 경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아주 간절했다. 정말로 나의 힘과 이성, 감정으로서는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다. 나는 십자가를 다시금 무책임하게 주님께 넘겨 버리는 지극히도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이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인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새해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다시 죄의 길로 슬그머니 물들어 가라는 마음과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충동하는 가운데 다시금 말씀 위에 오르기를 원한다. 이 전의 말씀들로 인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안일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에 계속 매달려 머뭇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뀌어 어질 삶을 기대하며 청지기 훈련 가운데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싶다.

배천희(대학부)

청지기 훈련
좌석 배치도

*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 탁아부를 운영하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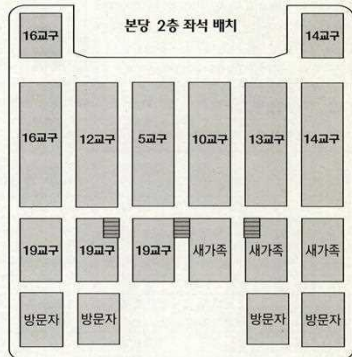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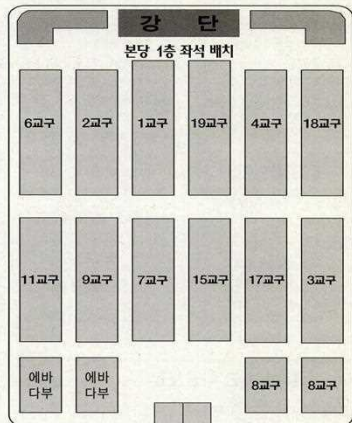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베디니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28	박정혜	19	대학부	임정희(1)	463	최은주	19	대학부	조진영(5)	498	박신숙	7	장년부	배소영(12)
429	박정기	19	장년부	이현경(1)	464	정지영	19	대학부	최예슬(8)	499	송소주	10	중등2부	윤민숙(8)
430	윤종국	9	장년부	김영태(8)	465	이종근	19	대학부	이은희(1)	500	김진환	8	장년부	김여민(4)
431	김기환	19	고등부	황재민(1)	466	김상현	19	대학부	이민환(7)	501	정진우	19	장년부	김여민(4)
432	신재현	4	장년부	이민환(10)	467	김진우	11	장년부	신정원(1)	502	황희숙	9	장년부	이민환(1)
433	황신영	2	고등부	노은숙(1)	468	조현규	12	장년부	김지수(9)	503	김재현	19	장년부	최정희(6)
434	김진성	19	중등2부	장희정(8)	469	류승준	19	장년부	김영환(1)	504	김광철	9	외선부	김정희(6)
435	조윤태	19	고등부	김다정(8)	470	조지훈	6	장년부	김민교(18)	505	김진숙	5	장년부	김정희(6)
436	박재한	19	장년부	한다정(19)	471	김수현	19	대학부	이민규(4)	506	김다정	1	장년부	최해(1)
437	김유진	19	대학부	김진애(18)	472	이승환	19	장년부	심 원(1)	507	박지영	19	고등부	김정희(6)
438	김민미	19	고등부	장희정(11)	473	서유란	19	고등부	김경미(1)	508	김재현	19	중등3부	이은기(1)
439	이연우	19	대학부	이정희(7)	474	이희희	19	중등3부	홍정원(1)	509	홍정원	19	장년부	김정희(6)
440	황상진	9	장년부	윤지현(7)	475	최진희	11	장년부	김영민(18)	510	송진우	16	장년부	김정희(6)
441	박소현	19	대학부	김재현(1)	476	박지은	19	고등부	김진우(9)	511	서정숙	6	장년부	이은지(12)
442	홍민우	19	대학부	이성희(1)	477	라예란	19	장년부	홍준섭(8)	512	이성삼	19	대학부	최진희(1)
443	남기훈	19	대학부	김지현(12)	478	조 조	19	외선부	전종섭(1)	513	이성민	19	대학부	박준호(1)
444	정재우	19	대학부	윤종원(1)	479	주인자	8	장년부	이연애(18)	514	김진우	19	고등부	정순옥(1)
445	임수정	19	장년부	김소희(3)	480	최 문	19	장년부	김다정(1)	515	박지현	19	장년부	심재훈(1)
446	홍원진	19	장년부	오은숙(1)	481	버트달	19	외선부	전종택(17)	516	홍지현	19	장년부	김정희(6)
447	임지숙	19	대학부	김영호(1)	482	윤서민	19	외선부		517	이연희(1)	19	대학부	문 준(1)
448	홍원준	19	대학부	김진희(1)	483	류 서	19	외선부	황정희(1)	518	다소영(1)	19	외선부	지정희(1)
449	최희연	2	장년부	김영태(1)	484	이연우	19	장년부	최유진(1)	519	김 수	19	외선부	채정희(1)
450	서희원	19	대학부	서 민(18)	485	김재현	12	장년부	이성민(1)	520	최진우	19	장년부	이은지(12)
451	김진민	19	장년부		486	나은하	19	고등부	박지희(1)	521	김정희	2	장년부	김정희(6)
452	신영훈	19	대학부	정영미(1)	487	정지혜	19	대학부	이순규(1)	522	김진우	19	대학부	박준호(1)
453	김은환	19	대학부	김진선(18)	488	김진우	19	장년부	유지현(1)	523	조희나	19	대학부	김정희(6)
454	이정애	19	대학부	방세원(1)	489	박영애	11	장년부	박재민(1)	524	유진희	19	장년부	이은지(12)
455	윤종희	19	대학부	이동훈(12)	490	이보민	16	장년부	윤종국(18)	525	김정희	7	장년부	김정희(6)
456	한효주	19	대학부	허 정아(1)	491	조진환	19	장년부	홍정원(1)	526	이영진	2	장년부	
457	박진영	19	대학부	이성현(18)	492	박지은	19	고등부	이대영(1)	527	정진우	19	장년부	박진숙(1)
458	정경민	19	대학부	정영미(1)	493	이수경	19	고등부	김정희(1)	528	최희희	19	장년부	박진숙(1)
459	이현영	19	고등부	노예정(1)	494	이성희	19	장년부	김영규(1)	529	조진우	19	장년부	박진숙(1)
460	박지민	19	장년부		495	이영희	19	고등부	김정희(1)	530	이현영	19	장년부	박진숙(1)
461	주영남	6	장년부	조은옥(16)	496	이영희	14	장년부	김정희(1)					
462	안예숙	19	대학부	박민지(18)	497	황희숙	19	장년부	박정희(3)					

* 중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簿로 오시기 바랍니다. ☆

신동자 12등	윤인숙 10등	한영준 11등	홍순애 12등
이옥주 9등	김범파 6등	안태순 11등	김정연 14등
최문실 10등	전은희 12등	김영순 11등	김경자 15등
이복순A 10등	류진희 13등	전성임 13등	임태두 2등
유미자 10등	이복순B 12등	강호숙 8등	
서자옥(재학)			

☒ 찬양감독 강임규
 ☐ 전담치위자 서운성
 ☐ 찬양감독 김원섭
☒ 전담목장 김조연
☒ 전염연주자 장연희
 성.금.시.순.호